□ 기획연재 □

한국정보과학회, 어제를 돌아보며 내일로(12)

회고와 변화의 시점에서

고려대학교 황종선*

우리 학회가 남긴 발자취를 돌아보며 그 동안 있었던 일과 미래의 학회 위상에 대한 기획연재를 부탁받고 학회를 돌이켜 보게 되었습니다. 서둘러 글을 써야지 하면서도 마음만 급하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서 글이 늦어졌음에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렵고 바쁠 때일수록 더욱 뛰어야 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학회가 1973년 3월에 출발하여 올해로 25돌이 되어, 이제는 완숙된 청년기에 들어섰습니다. 그 동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커다란 발전을 해왔습니다. 김길창 회장님을 모시고 제가 총무담당이사를 맡아서 일할 때는 구의 전철역 옆 단칸 사무실에서 이용태 실장과 매일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의 제일 목표는 재정기반 확충을 통하여 우리 학회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김길창 회장님의 역량과 적극적인 활동으로 많은 행사와 산업체와의 연계로 재정기반을 확충하여 마포의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기금을 만드는 데 주력을 했고, 이것이 지금의 방배동 사무실을 구입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 학회의 기반이 만들어졌으며 저는 부회장, 감사를 거쳐 95년 제13대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미진하지만, 제가 학회에서 계획하고 실천했던 몇 가지 사항들을 돌이켜 보겠습니다.

첫째는 학회의 정관 및 규칙은 회원의 여론 수렴을 거쳐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학회의 정관을 학회의 활성화와 업무 추진 및 내실을 다지기 위한 방침으로 확립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정관 및 규칙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였고 부회장과 평의원수를 대폭 늘렸습니다. 학회 회원의 증가와 각종 사업, 심포지엄, 세미나 등을 계획하고 이행하였으며, 특히 안정재정 기반구축을 위해서 학회장의 임기를 늘렸습니다. 돌이켜 보면, 학회장의 임기를 늘린 것과 평의원수를 늘린 일은 많은 회원이 학회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발전은 12대 이석호 회장과 14대 김영찬 회장의 많은 도움과 활동으로 가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이 제도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해 보고, 평의원 수와 학회장 선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적인 보안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둘째는 논문지의 질적인 향상은 물론 양적인 면에서도 매년 30%씩 증가함에 따라 한 권의 논문지로 모두 수용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러 1995년 9월부터 논문의 내용과 특성에 따라 논문지 A와 논문지 B, 논문지 C로 분리 발간했습니다. 논문지 A와 B는 월간으로 하고 논문지 C는 계간으로 했으며 정보통신관련분야 학회장 협의회와 함께 영문 논문지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논문지의 개선을 위한 전체적인 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애써주신 황규영 편집 위원장님과 편집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셋째는 학회지가 우리 정보화 사회에 학술정보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기획연재와 함께 알찬 특집, 각종 소식 등 여러 유용한 정보를 게재함으로서 모든 회원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유

* 종신회원, 한국정보과학회 제13대 회장

익한 정보지가 되도록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애써주신 백두권 편집위원장님 및 편집위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학회지는 모든 우리 회원의 정보지로, 우리 모두가 애정을 가지고 많은 투고와 아이디어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적인 동향과 주요 행사 및 중요 기술정보도 추가되었으면 좋겠고, 광고도 좀 더 많이 유치하여 재정에 도움에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넷째로 생각나는 것은 국제협력과 ICCC '95 심포지엄의 개최입니다. ACM회장이 우리 학회를 방문하기 위해 내한하여 임원진과 회합을 갖고 두 학회간 협력관계를 증진하기로 했으며 IEEE와 상호 협력관계 및 광고 교환 등 좋은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ICCC '95는 세계적인 정보통신분야의 큰 행사로 한국전자통신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심포지엄이었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당시의 정보통신부 장관인 경상현 박사,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소장인 양승택 박사와 조직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이러한 행사들이 국내외적으로 우리의 위상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재정적 도움도 컸습니다. 앞으로 ACM, IEEE 등 세계적인 정보통신 학회와 좀 더 구체적인 관계를 맺고 활동하며, 국제적인 심포지엄이나 학술대회를 좀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되겠습니다.

IMF 시대라는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여 이제 학회도 변신을 필요로 합니다. 우선 재정적인 면에서 볼 때 앞으로 어려움이 많으리라 여겨집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논문의 게재료를 현실화하고, 학회지에 일반적인 광고 이외에 상품 정보를 게재하도록 하여 이를 활성화시켰으면 합니다. 또한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여 우리 학회의 위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ACM, IEEE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적 행사를 개설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비록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지만 서로가 애정을 가지고 노력함으로써 우리 학회는 더욱 발전하여 세계적인 학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학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 제8회 통신정보 합동학술대회 ●

- 일　　자 : 1998년 4월 22일(수)～24일(금)
- 장　　소 : 전주 리베라호텔
- 주　　최 : 정보통신연구회
- 문 의 처 : 포항공과대학교 전자계산학과 김치하 교수
  Tel. 0562-279-5600